상황개선 대신 의존도 높이기

(예레미야 42:1~22)

1.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2.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3.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상황개선 대신 의존도 높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상황개선 대신 의존도 높이기'
'Gentle Birth(젠틀 버-스)'라는 말이 있는데 '부드러운 출산'이라는 뜻입니다.
출산과정에서 엄마와 아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불필요한 자극들을 제거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기들이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에 최고의 안정을 느낀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도 최대한 안정을 유지시켜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산부인과는 소란스럽고 살풍경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엄마는 침대에 고정된 채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비과학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때로는 분만촉진제를 과용하여 산모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젠틀 버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출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젠틀 버스의 개념은 우리 신앙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평강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평강은 점점 줄어들다가 늙어서 죽기 직전에는 두려움과 염려의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정과 평강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인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성경과 연관시켜 해석해보면 이상한 등식이 생깁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진 두려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벗었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가 맨몸이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에 열 명의 자녀와 아내, 막대한 재산, 건강, 친구들의 우정, 사회적 평판과 명성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욥의 일화를 통해 아담이 벗었음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길만한 가치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이 말했던 알몸의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소중히 여길만한 가치가 없는 상태의 벗었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벗었음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벗었음의 타락 전과 후를 겉으로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마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벗었느냐 입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타락 전에 육체는 벗었지만 에덴에서 기쁨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독립된 판단주체가 되고 나서는 스스로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찾아서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기의 성장과정을 보면 아담이 평강을 잃게 되는 과정과 닮았습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에 평강은 정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평강을 잃게 됩니다. 아직 어려서 부모가 사주는 옷을 입는 동안에는 그나마 평강이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옷을 사 입게 될수록 평강은 희박해지고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의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판단력이 강해질수록 평강은 감소해가는 반비례 등식처럼 보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알몸으로 있었지만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알몸으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의미하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육체에 옷을 입는 것처럼 마음은 환경의 옷을 입습니다. 환경은 곧 내 삶의 조건이고 상황입니다. 마음에 삶의 상황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을 짊어지게 될수록 평강은 깨져갑니다.
제목의 ‘상황개선 대신 의존도 높이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개선과 호전을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입고 있는 삶의 상황의 옷이 더 멋진 옷

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맨몸으로 아기를 안고 욕탕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께 밀착되는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맨몸으로 밀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환경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환경의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서 부러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환경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밀착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처럼,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밀착하여 하나님께 안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길 수 없다면 수고하고 애쓰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없이 따라 붙는 타락 후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환경에 놓인 것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삶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처럼 보일수록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환경이 호전되고 좋아진다면 부담스럽게 여기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스마엘의 테러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혈통이자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은 암몬 왕으로부터 열 명의 칼잡이를 지원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패망한 유다 나라에 최소한의 행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와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유다의 회복을 시도하던 세력을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북쪽에서 온 순례자들 칠십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잔존해있던 왕족과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데려가던 중에, 군대장관 여호난의 추적을 받게 되고 두 명의 칼잡이를 잃고 남은 여덟 명과 함께 암몬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얻은 것이 없지만 유다는 이로 인해 치명타를 입고 회복의 기운이 끊어졌습니다.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았던 숨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잔존민들의 고민이 생겨납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이면서 대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분명 반란으로 여길 것이고 유다 사회를 문제 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유다 땅에 머물러 있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합니다. 물론 애굽으로 이주한다 해도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위협은 있을 것이며 애굽으로 간다한들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주를 결정한 이유는 애굽에 대한 의존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여전히 대국이었고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전부 동원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유다와는 다르게 전쟁 중에도 백성들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를 언급하며 반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는 전쟁이 나도 백성 전체가 휘말리지 않을 군사력이 있었고, 나일강의 기름진 삼각주에서 나오는 곡식의 풍성함으로 궁핍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 잔존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닥을 알 수 없는 악화일로를 걷는 조국에 비하자면 애굽에서의 삶은 꿈만 같을 것이고 갈수만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60~70년대의 우리가 느꼈던 미국의 풍요로움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 싫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다음 장에서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세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말쟁이와 배신자로 몰며 애굽으로 이주를 강행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그다랴를 총독으로 해서 회복하려던 기운조차도 이스마엘의 테러로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고, 바벨론 왕이 잔존민들을 추궁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를 통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것이 갸륵하게 여겨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16~17절을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고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멸망이 가져온 깜짝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 최고의 성공을 위한 기회가 멸망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성공은 100% 하나님을 의존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삶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을 때 개선시키거나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몸이 알몸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알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알마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밀착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에 온전히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알마음이 되는 것이 의존도의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한 마음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환경을 맞이하면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면서 창조를 하셨듯이, 암탉이 알을 품어 부화하듯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씩 부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극복되며 이끌려 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환경의 옷을 벗고 알마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유다의 상황은 알마음 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더는 마음에 걸칠만한 세상의 가치가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겨우 티 하나 걸친 상태인데 티마저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합니다. 안 입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기에는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 멸망을 기회로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평강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몇 겹씩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가졌던 것과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감싸버린 환경의 옷들이야 말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밀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알마음으로 하나님과 빈틈없이 밀착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삶의 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마음을 감싸고 있던 옷들이 다 찢어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드디어 이 옷을 벗어던지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에 환경의 옷을 입고 호전되고 개선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는 것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고 있던 마음의 옷들이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강제로 다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치를 잃었기에 벗어던지기가 한결 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다 찢어진 옷 벗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애굽으로의 이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생겼으니 예레미야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마음이 된 우리를 안으실 준비가 되어있으십니다. 가서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엄마와 밀착된 아기는 따듯한 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따듯한 욕탕에

서 엄마와의 교감을 이루며 최고의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끝내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며 광야에서 사십 년을 살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유다 잔존민들이 처한 상황보다 광야에서의 삶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에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알마음이 되는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는 마음으로 입을 옷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알마음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적 옷을 벗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훈련함으로써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계속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삶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똑같이 복지에 들어간 선민들은 또 다시 환경이라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부흥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일류대학을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기쁨을 누리는 대신에 자꾸만 세상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독립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느끼던 평강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궁 속의 아기나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100% 엄마를 의존하고 최대한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며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망하고 나니 마음이 입을 만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도 한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아직도 마음에 입을 옷이 있다고 믿으며 이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설령 바벨론 왕의 추궁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십 년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마음의 옷 벗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벗었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하다고 여길 때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한 증후군입니다. 환경의 옷이 얇아지거나 거칠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을 위해서는 이 환경의 옷을 벗어버리고 알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안겨야합니다. 그럴 때에 자궁 속의 아기처럼 엄마 품의 아기처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삶을 바꾸려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환경의 옷을 벗고 알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욥이 알몸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로소 온전하게 100%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입고 있는 환경의 옷은 십자가를 통해 벗겨집니다. 유복한 환경에 있든 각박한 환경에 있든 마음에서 옷은 벗겨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마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제가 카투사의 비행중대에 있을 때입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면 30~40분 쉴 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 보면 다른 동료들은 옷을 입은 채로 워커를 신은 채로 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있으면 쉬는 것 같지가 않아서 워커도 벗고 군복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누워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벗는 것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틈만 나면 십자가로 마음에서 환경의 옷을 벗어야합니다. 그리고 알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안길 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 놓인 멸망은 놓치기에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보겠지만 이들은 결국 기회를 잃고 맙니다. 옷을 많이 입었을 때는 벗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다 찢어진 옷을 벗어던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 쉬운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삶을 이끌어나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환경의 옷 벗기를 끝내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마음에서 환경의 옷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로 내게 주어진 환경의 옷을 매 순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껴안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100%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